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6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방글라데시, Chittagong항 등 항만개발에 주력	2
□ COSCO, 그리스 물류투자 확대 검토	4
□ APL, 대만 가오슝항 전용 터미널 크레인 보강.....	5
□ DP World, 인도 Kulpi Project 진전에 노력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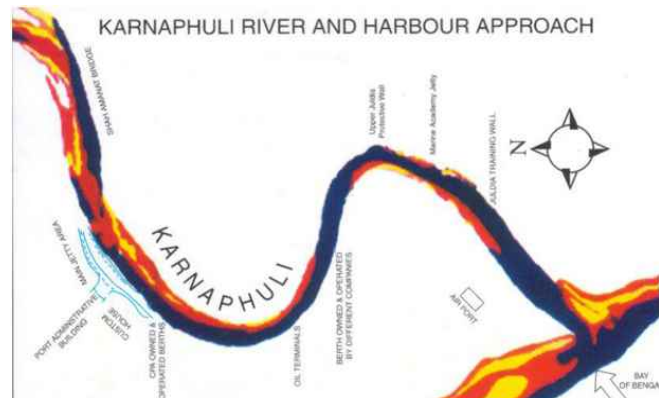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 Chittagong항 등 항만개발에 주력

- 방글라데시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는 대표 관문항만인 Chittagong항, Mongla항 및 신항인 Sonadia Deep-Sea Port 등 개발에 박차
 - Chittagong항을 중심으로 Mongla항은 서쪽으로 185km, Sonadia 신항은 남동쪽 80km 떨어진 Cox's Bazar 지역의 Sonadia 섬에 위치



○ Chittagong항 개요 및 개발현황

- 방글라데시 수출입화물의 92%를 처리하는 대표 관문항만으로서 2009년에 3,048만톤의 화물을 처리(이 중 컨테이너는 116만 TEU, 2008년 107만 TEU를 처리)
- 전체 16개 선석, 컨테이너터미널은 Chittagong Container Terminal(CCT) 및 New Mooring Container Terminal(KCT)의 양대 터미널에서 6개 선석을 운영
 - CCT는 4개 선석 450m, 수심 9m의 시설규모로서 컨테이너 모선의 기항이 불가능하며 2010.5 현재 평균 Turnaround Time이 72시간에 달해 터미널 운영이 비효율적
- 해운부 산하의 Chittagong Port Authority(CPA)가 항만관리청이며 실제 터미널 운영은 CPA와 운영계약을 맺은 Saif Power Tech사가 담당
- CPA는 2013.6 개장을 목표로 연간 60만 TEU 처리능력의 Karnaphuli Container Terminal(KCT)을 추가 건설 중이며 완공시 Chittagong항 전체의 처리능력은 연간 250만 TEU로 증가



○ Sonadia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현황

- Sonadia섬은 Chittagong항에서 남쪽으로 8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수심이 14~16m로 천혜의 항만여건을 구비
- 1단계 총사업비 1,300억 타카(약 18억불, 2조 800억원), 연간 처리능력 300만 TEU
- 9선석, 총 선석길이 2,700m, 부지면적 220ha(220만㎡, 약 66만평) 조성 예정
- 2017년 1단계 개장 목표이며 향후 물동량 추이에 따라 3단계까지 추가 개발 계획
- 방글라데시 해운부는 2010년말 공사 개시를 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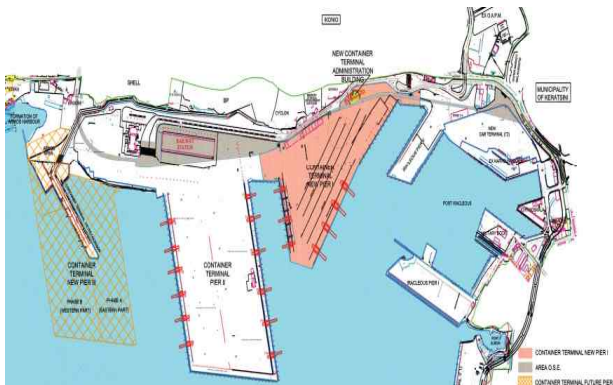
○ Mongla항 개요 및 개발 추진현황

- 방글라데시 제2의 항만으로 벵갈만에서 131km 북쪽에 위치한 내륙항만(River Port)으로서 네팔, 부탄 및 인도 일부 접경지역에서 관문 항만으로 이용
- 항만부지는 960ha(약 290만평)이나 5선석의 수심이 최대 8.5m에 불과하여 전장(LOA) 210m 이하 선박만 접안 가능, Mobile Crane 6기 보유, 연간 약 150척의 선박 기항
- 항만관리청은 Mongla Port Authority(MPA)이며 항만을 직접 운영
- MPA는 1,980만불을 투자하여 Mongla항 하역시설 보강 및 항행보조시설 개량 등 항만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며 2011.6까지 마무리할 예정
- 2009.12.2 MPA와 싱가포르 DWA사(David Wignall Associates Private Limited)간에 Mongla항 개발 MOU 체결
 -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에 양측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에 의한 BOT(Build-Operate Transfer) Basis의 본계약 체결
 - 총 사업비는 30억불, 2030년까지 프로젝트 전체(전력시설, 항로준설, 산업단지 및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마무리 예정

자료 : Ministry of Shipping Bangladesh, CPA, MPA, Financial Express 2010.5.20

□ COSCO, 그리스 물류투자 확대 검토

- 중국의 세계적인 물류 그룹인 COSCO(China Ocean Shipping Group Company, 中远集团)는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의 시발국인 그리스에 물류투자 확대를 검토
 - 2010.5 중국투자단의 대표로 그리스를 방문한 COSCO 그룹의 Wei Jiafu(魏家福) 회장은 그리스 대통령 및 총리와의 면담에서 중국의 대 그리스 물류분야 투자 확대 방침을 언급
- 중국의 그리스 Piraeus항 투자현황 및 계획
 - Piraeus항은 그리스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Pier I과 Pier II의 시설규모는 수심 18m, 선석 길이 2,774m, 야드 면적 900,000m²(약 27만평)로 연간 160만 TEU 처리능력
 - 2009.10 이전까지는 항만관리청인 Piraeus Port Authority(PPA)가 Pier I과 Pier II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며 PPA의 지분은 그리스 정부가 74%를 보유
 - 2008년에 PPA로부터 Piraeus항 Pier II, III의 35년 운영 및 개발권(Concession)을 획득한 COSCO의 자회사인 COSCO Pacific사는 2009.10부터 Pier II의 운영을 개시
 - COSCO Pacific사는 2015년까지 5억 5천만 유로(약 6억 8,700만불)를 투자하여 현재의 시설능력을 연간 370만 TEU로 확장할 계획



- COSCO 그룹의 그리스 물류산업 투자 확대 분야
 - Wei Jiafu COSCO 그룹회장은 2008년에 중국이 35년간 운영 및 개발권을 획득한 Piraeus항 Pier III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재확인
 - 또한 향후 신조선 및 수리조선, 용대선, 크루즈선, 종합물류, 항만서비스 등 물류산업 전반에 걸친 COSCO 그룹의 그리스 투자 확대방안을 시사

자료 : COSCO Group, Piraeus Port Authority, China Knowledge 2010.5.24

□ APL, 대만 가오슝항 전용 터미널 크레인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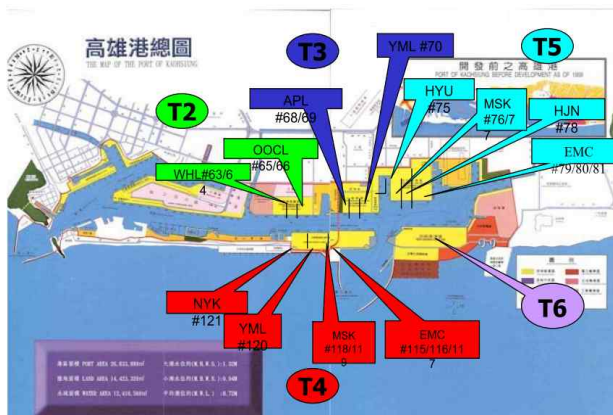
○ 가오슝항(Kaohsiung Port, 高雄港) 개요

- 대만 최남단에 위치한 대만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2009년에 8,585,273 TEU를 처리하여 세계 12위를 기록(2008년 9,676,554 TEU 처리)
- 선사별 5개 전용터미널(23개 선석, 수심 14.5~16.5m)에서 연간 1천만 TEU의 처리능력을 보유
- Kaohsiung 항무국(KHB : Kaohsiung Harbour Bureau)이 항만관리의 주체



○ APL 터미널 현황 및 크레인 보강 내용

- 싱가포르 NOL사의 계열 컨테이너 선사인 APL은 가오슝항 3번 터미널 68/69번 선석을 자사의 전용 터미널(2선석 752m, 수심 14m)로 이용 중
- APL사는 금년 7월부터 90m 높이의 중국 Zhenhua Port Machinery Co. 제작 Ship to Shore Crane(적재능력 75톤, 22열) 4기를 새로 투입하여 터미널의 생산성을 향상할 예정
- APL사는 터미널 생산성이 5~1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터미널에는 향후 2년 이내에 취항 예정인 자사의 1만 TEU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



자 료 : Kaohsiung Harbour Bureau, CI-Online 2010.5.19

□ DP World, 인도 Kulpi Project 진전에 노력

- DP World사는 인도 West Bengal 주 소재 Kulpi 지역에 60만 TEU의 Greenfield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진입항로 준설 등의 문제에 관한 Kolkata Port Trust(KoPT)와의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
- Kulpi Project 개요 및 그간의 경위
 - West Bengal주의 Kulpi 지역은 Hooghly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Kolkata항 남쪽으로 78km, Hooghly강을 기준으로 Haldia항 동쪽의 건너편에 위치
 - 총사업비 3억 5천만불을 투자하여 450m 선석, 수심 12m, 연간 처리능력 60만 TEU의 컨테이너터미널과 Special Economic Zone(SEZ) 3,000 Acre를 건설 및 조성하는 사업
 - DP World사는 2006년 P&O 인수로 동 프로젝트를 승계하였으며 프로젝트 시행사인 Bengal Port Ltd(BPL)의 지분은 DP World사와 Mahendra Jalan of Keventer Agro사가 각각 44.5%를, 나머지 11%는 West Bengal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가 소유



- 프로젝트 쟁점 및 향후전망
 -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업 시행사와 Kulpi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Kolkata Port Trust(KoPT)간의 쟁점은 1) 진입항로 준설비용에 관한 비용 분담, 2) 숙련된 도선 서비스 제공 문제로 요약
 - DP World사는 모그룹인 Dubai World의 자금위기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사업전망이 우수함을 감안하여 공사 착공후 2년 이내에 터미널을 개장하겠다는 입장이나, KoPT가 이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보이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자 료 : Kolkata Port Trust, Business Standard 2010.5.20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